



**자전거 유세** 4·10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자전거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해 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진보당 윤민호 후보, 무소속 김성환 후보,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각 후보 캠프 제공

## ‘22대 총선’ 광주 선거인 119만9582명 50대 24만2098명…18세 이상 10대 2만8710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선거인수가 119만9582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8명을 뽑는 총선(10일)에 참여할 선거인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총 119만9582명이라고 1일 밝혔다.  
 총선 선거인수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20만7972명보다 8390명(0.7%) 감소했다.  
 선거인은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한 18세 이상으로 연령별로는 50대가 24만2098명(20.18%)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40대 22만5485명(18.8%), 20대 18만7854명(15.66%), 60대 18만6482명(15.55%), 30대 17만2992명(14.42%), 70대 이상 15만5961명(13%), 10대 2만8710명(2.39%)순이다.  
 성별로는 남자 58만7497명(49%), 여자 61만2085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2만4588명 더 많았다.  
 지역구별로는 북구유이 가장 많은 20만2572명(16.89%)이었으며 광산을 18만6787명(15.57%), 북구갑 15만8463명(13.21%), 광산갑 13만8064명(11.51%), 동남갑 13만6736명(11.40%), 동남을 13만3090명(11.09%), 서구갑 12만4977명(10.42%), 서구를 11만8893명(9.91%)순이다.  
 확정된 선거인명부 열람은 주소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오는 5~6일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0일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선주 기자

## “튀어야 산다” 이색 선거운동 ‘눈길’

꽃 치장 자전거유세단…전동스쿠터도 “내가 일꾼” 지게·쌀 배달 자전거까지 용달차 스피커 한 대 ‘짠내’ 선거운동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닷새째를 맞았다. 광주·전남 각 정당 후보들은 한 번이라도 더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거운동에 접목하고 있다.  
 1일 4·10 총선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광주 북구를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윤민호 후보는 ‘자전거유세단’을 꾸렸다.  
 자전거 앞에는 알록달록한 색상을 넣은 바람개비를 달고, 뒷자리에는 꽃바구니를 연상케하는 형형색색의 꽃들로 치장했다. 5~6명의 유세단은 한껏 꾸민 자전거를 타고 곳곳을 누비며 윤민호 후보를 알리고 있다.  
 민주당 일당독점으로 본선이 사라진 광주 정치판에 축제 같은 즐거움을 주는 선거를 만들고, 꽃을 선사 받듯 시민이 대접 받는 정치로 바꾸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자전거를 타고 유세 현장을 누비

는 후보가 더 있다.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성환 후보도 자전거를 이용해 선거구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예비후보때부터 자전거 유세를 활용했던 김 후보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며 “자동차로 이동하기 힘든 골목 등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을 만나기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본인을 알리고 있다.  
 해당 자전거는 전라도 사투리로 ‘짠내’이라고 불린다. 윤 후보 측은 지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과거 선거에서 유세를 할 때 밀짚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 화제를 모았던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는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밀짚모자 대신 헬멧을, 자전거 대신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밀바닥 표심에 다가서고 있다.  
 ‘천지개벽’이라 적힌 흰색 헬멧을 쓴 채 스쿠터로 유세를 펼치는 중이다. 동네 옆집 아저씨를 떠올리게 하는 ‘친근함’을 내세운 전략으로 해석된다.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정명 후보는 지게를 짊어지고 유세 활동을 다니고 있다. 지게에는 가마니 등 다른 집 대신 ‘광주시민 북구주민을 위하여 집권여당 김정명은 합니다!’라고 적힌 판을 달았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지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지게에 빈 가마니를 올리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것 같아 대신 문구가 적힌 판을 올렸다”고 말했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국민의힘 광복근 후보는 ‘정치 9단’이라 불리는 거물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에 맞서 ‘짠내’라는 선거운동 전략을 구사 중이다.  
 화려한 전광판 등으로 치장한 기

존 유세용 차량과 달리 광 후보는 용달차에 달랑 스피커 하나만 올렸다.  
 전남에서 경쟁 상대인 박지원 후보와 비교해 힘이 필요한 정당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총선에서 젊은 신인 정치인들도 나름 이색적인 선거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광주 동남을에 출마한 33살의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는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타 지역구에서도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장 후보는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광주 첨단지구는 물론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홈경기장이 열리는 광주축구전용구장 앞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40살의 무소속 양운열 후보의 선거공보물도 눈에 띈다.  
 다른 후보들이 공보물에 각자 얼굴을 큼직하게 넣은 것과 달리, 양 후보는 본인의 뒷모습을 담았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텃밭에서 조금이라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운동 전략을 구사 중이다.  
 화려한 전광판 등으로 치장한 기

## ‘30년 숙원’ 전남 통합 아닌 단일 의대 추진 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주도 공모로 결정키로

전남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이 동·서부권 통합 의대에서 단일 의대로 변경되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주도로 공모가 진행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부에 신청했던 통합 의대 방식을 접고 공모 방식을 통한 단일 의대를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변경했다.  
 교육부의 ‘1도(道) 1국립대’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선(先) 대학 선정, 후(後) 정부 추진’ 방침, 여기에 정부 관련 부처의 분위기 등을 두루 감안한 결정이다.  
 순천과 목포 일각에서 제기돼온 ‘단독 의대 신설론’으로 소지역주의와 동·서부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대를 원하는 목포대와 순천대 간 국립대 통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 ‘전남 의대 신설’를 꼭 짚어 언급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의견 수렴과 대학 선정이 조건부여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통합 의대’를 밀고 가기에 무리가 있어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 추진’을 골자로 2일 국립 의대 신설 관련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남도 이외 지역의 중립적인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남권 대학을 상대로 공개모집에 나선 뒤 엄정한 심사 등을 거쳐 대학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도 검토할 방침이다.  
 외부 용역은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남의대 최종 후보 대학은 빠르면 7~8월, 늦어지면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호 기자

광주 SI 새싹기업 키운다	2면
尹담화에 야권 “불통 정부”	3면
온라인소셜 농축수산물 최대	4면

**Golf** 500평 규모 31타석 및 좌타2개타석 보유  
 예술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골프연습장 선정

**QED 골프아카데미 상무점**

**2022 QED BIG EVENT**

회원 등록 전 **무료 레슨 체험**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 시 **골프장 60분 이용권**  
 주니어 골프교실 **50% 할인 적용**

김넷과 상무점 '해운대 영무호텔' 숙박권 증정

500평 규모, 31개 타석 / 프라이빗 스튜디오 / 높이 180cm 대형 탁자 / 샤워실과 사우나 구비

☎ 062)374-0088

**광주 유일 100m 트랙을 소유한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VIP MEMBERSHIP**  
 광주은행 / 기아자동차 / 영무토건 / 바로연 / 영무파라드호텔 / 신성모터스 밴스 / U탑 유틸레스 / 시원병원 / 워더스 웨딩 / 압구정 제이엘의원 / 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회원 본인 및 가족 20% 할인

**LOCATION**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64 영무에다움 상가 2F, 3F

**HOURS**  
 월~금요일 오전6시~오후12시  
 토·일/공휴일 오전8시~오후8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RESERVATION**  
 전 중목 파라드시티 어플을 이용한 예약 시스템 이용  
 상세 내용은 어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Parade City

**전국 최대규모 프리미엄 토탈센터 파라드시티**

**Fitness**

**Tennis**

**THE 14DAYS**

**Calorie Bar**  
 DANIEDEL  
 THE 14DAYS